

### 함평군, 치매 인지재활교실 재개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령 치매환자 돌봄 공백 우려  
정부 방역지침 따라 지역 확산 차단에도 총력 방침



함평군이 코로나19로 잠시 중단했던 치매 인지재활교실을 재개한다. 22일 함평군에 따르면 장기화 된 코로나19 여파로 고령의 치매환자들

군 관계자는 “그동안 노인다중이용 시설 이용이 제한되면서 많은 수의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우울증 등 정신적·신체적 고충을 토로했다”면서, “아직까지 군 전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정부의 방역 지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우선 고령의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치매 심터를 비롯한 인지재활교실을 운영한다.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는 뇌활성화 운동, 작업치료, 현실인식훈련, 회상치료, 전산화 인지훈련 등 다양한 비(非)약물 치료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수업 전후로 소독과 환기, 발열체크 등을 수시로 실시하면서 감염병 지역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치매심터와 관련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면서, “치매 중증화 역제를 위한 다양한 인지재활 프로그램도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 강진 봉우리회 따뜻한 봉사손길 펼쳐

성전면 장애인가정 주거환경정비 봉사실시 ‘구슬땀’

지난 21일 강진 봉우리회 회원 10명은 성전면 장애인 가정을 방문하고 안전한 거주지 제공을 위해 주거환경정비 봉사를 실시해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딸, 손녀와 함께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대상자 가정은 그동안 장마 때마다 이웃집에서 휴탕물이 마당으로 내려와 불편함을 호소했다.

도암권역 맞춤형복지팀은 대상자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이웃집을 설득해 뒷마당 우수로와 옹벽 설치공사를 건의했다. 이웃집에서는 대상자 집의 지붕 끝 슬레이트 때문에 옹벽공사를 진행할 수 없어 슬레이트 처리를 요청했다. 이에 도암권역 맞춤형복지팀과 성전면 주민복지팀은 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신청해 슬레이트를 제거한 후 장마에 대비한 주거환경정비 공사를 봉우리회에 요청했다.

어려운 사정을 들은 봉우리회는 전문기술 재능기부로 당일 하루 동안 소형 포크레인 장비와 인원을 동원해 마당과 뒤뜰 등 집안에 쌓인 토사를 견어냈다.

또한 토사에 가려 없어진 배수로를 찾아 정비하고 텃밭에 경계석을 놓는 등 앞마당 정비까지 마쳤다. 이와 함께 슬레이트가 제거되어 빗물 누수의



위험이 있는 처마 끝에 빗물받이도 새로 설치했다.

주 3회 방문해 지적장애를 가진 대상자를 돕는 장애인활동보조사 김명숙씨는 “수년간 쌓인 흙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고 장마철마다 빗물 누수로 불안해했는데 봉우리회의 봉사로 이번 여름을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중호 봉우리회 회장은 “휴일에도 쉬지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능 나눔을 선사한 봉우리회 회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나눔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결성된 강진봉우리회는 2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돼 있다. 매일 어려운 가정을 찾아 전기, 보일러, 지붕수리 등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강진=김영일 기자

###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김홍빈 장애인 산악인 초청 산행

공원관리 참여 통한 상호 이해 협력 증진 및 관계 개선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소장 이진웅)는 21일 산악인과 함께하는 공원관리 실현을 위한 민·관 참여 중심의 ‘내장산국립공원 산악리더(산대장)와 함께하는 장애인 산악인 초청 강연회 및 산행’을 가졌다’고 밝혔다.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산악리

더(산대장)는 기존 공원관리청 위주의 현장관리를 산악단체가 참여하는 상생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공원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장관리 수요를 해소하고자 구성된 모임이다.

장애인 산악인 김홍빈 대장을 초청하여 산행안전지도 및 구조지원에 관한 산악강의 청취 및 남창-임암구간을 산행하며 공원관리 현안 문제 등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알아보고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이 가졌다.

이진웅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소장은 “내장산국립공원 산악리더(산대장)는 산악단체 리더들이 국립공원 현장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 근로지원인 양성 ‘화상교육’으로 재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종란, 이하 ‘공단’)은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에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감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수행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교육이 불가능해 2020년도 양성교육 운영 수행기관 29곳 중 28개 기관이 상반기 내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지원은 교육생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것으로 수행기관들의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치면 통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공단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주요 사업별로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 사업주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해서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생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근로지원인 사업수행기관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연속의 가족끼리 곡성